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청소년이 상담사로 참여하는 '심리센터' 운영해야"	1
江原日報	21면	강원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	1
연방뉴스		강원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	2
G1방송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청소년도의회 개최	2
엔사이드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청소년도의회 개최	3
동방일보	10면	홍성기 의원,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4
스포츠서울	온라인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
江原日報	13면	속초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6
강원도민일보	15면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결의] 군체육회	6
강원도민일보	15면	철원군새마을회장 이·취임	6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7
江原日報	21면	[동정]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	8
강원도민일보	07면	충전 불편 여전한데 보조금도 감소... "전기차 안 살래요"	9
江原日報	04면	"강사 없어 교장까지 투입" 늘봄학교 혼선	9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소양강쌀 소비촉진 효과 톡톡	10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오늘 첫삽 뜬다	10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 망상1지구 대체사업 유치 안간힘	11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시동	11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시 '생활인구시대' 중점 조직개편 돌입	12
江原日報	10면	춘천 기업혁신파크 확정 시 파격 혜택	12
강원도민일보	15면	"세금은 이렇게 써야" 화천커뮤니티센터 주목	13
江原日報	12면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13
江原日報	13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기업 최대 1억 지원	14
江原日報	16면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 온라인서 화제	14
江原日報	07면	사흘간 1만여명 방문... 업체 판로개척 새 장 열었다	15
江原日報	05면	의대 증원해도 의사 수도권 쓸림 못 막아	15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 공동체 활성화 '지역혁신리더' 양성	16

江原日報	16면	"청정 철원에 소각재 매립지 반대"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필요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민심 듣고 헌신하는 자세로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가파른 물가에 서민 고통, 안정시키는 게 민생정책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환경부 산하 기관 오·폐수,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20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22

“청소년이 상담사로 참여하는 ‘심리센터’ 운영해야”

청소년 도의회 자유발언서 제안
학교 동아리 지원 강화 촉구 등
“안전·건강한 성장환경 제공”

‘청소년도의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는 ‘청소년 심리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8일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민서(홍천군 홍천여중3) 학생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강민서 학생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내 청소년 2054명을 대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13.2%가 ‘그렇다’고 답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 공감해줄 수 있는 ‘청소년 심리센터’를 운영

하자”고 제안했다.

임형우(삼척시 청아중3) 학생은 “부모의 폭력이나 무관심,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청소년기 사회환경

적 요소도 학교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전사회적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청소년도의회에서는 ‘청소년 사복금지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이 펼쳐졌다. 또, 학교 동아리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이 발표됐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구원 김경남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원도의 높은 자살률은 강원도 재난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원 지역 내 표준인구 자살 사망률은 32.7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4 03 11 ()

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했다.

2024 03 08 ()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청소년도의회 개최



(춘천=연합뉴스) 8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의장단과 청소년도의회 참석 중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2024 03 08 ()

G1방송

강원 특별자치도의회, 2024 청소년도의회 개최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는 오늘(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36개교에서 45명의 중학생이 참가해 도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고 직접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장 선거와 조례안·결의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지방 의정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청소년도의회 개최

김아영 기자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 대상, 체험과 소통 중심의 청소년도의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3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도의회는 청소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지방의회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도의원 49명, 청소년 도지사·교육감·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스스로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번 청소년도의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고민을 함께 나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청소년 도의회를 통해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의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동방일보

2024 03 11 ()

10

홍성기 의원,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업수산위원회는 3.8일(금)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행정재산

인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주된 제정 취지이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산불 예방을 비롯한 도벌(盜伐), 남벌(濫伐), 산림 병해충 예방 등의 보호 협약 체결과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할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도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산림 소득 향상은 물론, 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자치도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도유림의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을 살펴보면, 수액과 송이 판매액은 각각 3천만원, 2천4백만원에 달하며, 잣 채취량은 4

천320kg으로 집계된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도유림 면적은 총 410필지, 2만8천ha 규모로, 시·군별로 동해시와 횡성군, 철원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분포하며, 이중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태백시 등의 순으로 규모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 주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2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2024 03 08 ()

스포츠서울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발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민 산림 소득 향상에 기여
3.8일 제326회 임시회 농수위 제2차 회의서 원안 가결



홍성기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8일(금)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산불 예방을 비롯한 도벌(盜伐), 남벌(伐), 산림 병해충 예방 등의 보호 협약 체결과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할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도유림에 대한 산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산림 소득 향상은 물론, 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자치도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도유림의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을 살펴보면, 수액과 송이 판매액은 각각 3천만원, 2천4백만원에 달하며, 잣 채취량은 4천320kg으로 집계된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도유림 면적은 총 410필지, 2만8천ha 규모로, 시·군별로 동해시와 횡성군, 철원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분포하며, 이 중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태백시 등의 순으로 규모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 주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2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江原日報

2024 03 11 ()

13



속초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2024 속초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 의장, 원미희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5



군체육회 철원군체육회(회장 임대수)와 철원군의회 한종문·김광성·이다은 의원, 김정수 도의원 등은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주최 간담회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철원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을 실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5



철원군새마을회장 이·취임 철원군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동철원농협에서 조경하 취임회장, 정연권 이임회장을 비롯해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정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9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바람직한 소양호 둘레길 조성 방안

의정칼럼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호반의 도시 춘천은 '소양호'로 상징된다. 소양호는 1973년 동양 최대의 사력댐,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유역 면적 2703km², 총 저수량은 약 29억t에 달하는 한국 최대의 크기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린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양구군·인제군에 두루 걸쳐있다.

춘천 소양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필자로서는 소양호수권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싶은 구상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도와 한기호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총 300억 원(국비 210억, 도비 28억, 시·군비 62억 원) 규모로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참으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실린 '소양호수권 둘레길' 조성사업은 소양호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5.9km 구간을 2025년까지 72억을 들여 데크와 야자매트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며 우선적으로 든 생각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소양호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

론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만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전적으로 반한다.

둘째, 청정호수인 소양호의 산허리에 인공구조물인 합성목데크로드 길을 조성하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합성데크의 합성수지가 산림 하층 또는 소양호로 유입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안전에 관한 문제다. 데크로드는 소양호의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우천 시나 동절기에 미끄럼 및 낙상사고 위험이 높다. 친환경 숲길로 조성하면,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넷째, 공사비 및 유지 관리 비용 문제다. 친환경 숲길로 조성 시에는 데크로드와 야자매트길 공사비의 60억원의 약 3분의1 수준으로 공사가 가능하고 남은 잔여 예산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및 부대·연계관광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춘천시 낭만자전거길 유지관리 비용은 2021년 4억, 22년 5억, 23년 29억이 들었는데 데크의 수명 10년이 지난 시점에 기하급수적으로 유

지비용이 증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소양호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우리 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치악산 둘레길'이 있다. 개장 후 2년간 73만명이 방문했고 방문객의 43%인 약 32만명이 원주 이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이다. 전체 11개 코스 139km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소양호 둘레길'과 주변의 마적산 등산로, 가마골 생태탐방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맨발길, 트레킹코스, 산악자전거길, 숲길, 산림치유, 출렁다리 등 명품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 황토길, 자갈길, 우드칩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테마형 걷기길과 숲길 주변 공간을 활용한 정원형 숲길을 함께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와 쉼거리, 느낀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먹거리촌과 지역특산물 매장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맨발걷기대회, 단축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정기행사 유치로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면 명품(名品)길이 됩니다! 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江原日報

2024 03 11 ()

21

◇강정호강원특별자치도



의원(속초)은 11
일 오전 10시30
분 속초시 노인
복지관 3층 탁
구실에서 열리

는 속초시노인복지관 2024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07

충전 불편 여전한데 보조금도 감소...“전기차 안 살래요”

올해 도내 승용차 보조금 938만원
국비 감소 지원금 규모 전국 12위
충전소 부족 등 선호도 하락세

전국 지자체들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공고에 나선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내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으로 1000만원 이하로 하락, 친환경차 판매에 약제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보면 올해 강원지역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난해(1040만원)보다 102만

원 감소한 93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조금은 34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국비지원이 감소하면서 보조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에 지방비가 합쳐져 지급되는데, 올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680만원)보다 30만원이 줄은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조금 기준도 낮아졌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올해 보조금 기준이 지난해(5700만원)보다 200만원 낮아진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도내 전기차 보조금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비가 상이한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별 2024년 최대 지원금 기준, 강원도 지원 규모는 전국 12위로, 전국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경남 거창군(1790만원)과 비교했을 때 최대 812만원 차이가 났다. 올해 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도 지난해(7247대)보다 662대 감소한 6585대로 확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477대, 화물차 2283대, 승합차 95대, 이륜차 730대였고, 수소차는 693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소비자의 전기차 선호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

는 최근 전기차 연식변경 모델 가격까지 일제히 내린다고 발표했다. 또 중고 전기차 매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며 국내 시장이 첫 역성장한데 따른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12만 1000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LPG차의 누적 등록 대수(183만 3000대)를 넘어섰다. 이미 충분히 친환경차가 공급됐고 향후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 시간, 가격,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전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박모(27)씨는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 같다. 특히 강원도 충전소, 서비스 센터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장인에게 충전 시간은 길다”며 “전기차 관련 사고 소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면 더욱 구매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을 들여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호

江原日報

2024 03 11 ()

04

“강사 없어 교장까지 투입” 늘봄학교 혼선

“처음 학교 온 아이가 오후 늘봄 수업까지 받다 보니 ‘집에 언제 가요?’라며 울더라고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지난 7~8일 강원지역 84개 늘봄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파행운영 사례를 취합한 결과, 100여 건의 사례가 중복 접수됐다.

전교조가 전국 2,741개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내 접수 건수는 전체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늘봄 수업 중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린 사례가 다수 나왔다.

전교조 파행운영 접수 100건
학생 적응 못해 힘들어하기도
오늘부터 기간제 교사 배치

통상 초교 1학년에게는 2~3주간 학교 적응기간을 두지만 올해는 늘봄학교를 입학 첫 주부터 시행했다. 한 교실에서 늘봄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정규 4시간+늘봄 2시간 총 6시간 동안 같은 의자에 앉아 있게 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는 공간 부족에 1학년 교실을 늘봄교실로 활용한 학교에서 주로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오후 3시까지

교실 밖에 있어야 해 다음 날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다는 토로도 함께 나왔다.

또 다른 사례로 늘봄 강사를 구하지 못해 1학년 담임교사가 늘봄 운영에 투입됐다고 호소했다. 교사가 늘봄 참여를 거절한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번갈아 가며 늘봄수업을 진행한 사례, 학생들이 늘봄으로 물리면서 돌봄수업이 사라져 돌봄전담사는 대기하고만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 A교사는 “이미 정작된 돌봄과 달리 새로 시작된 늘봄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은 편”이라

고 토로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의 B교감은 “조속한 늘봄 시행을 강요한 도교육청 역시 정부의 등쌀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합된 사례 중에는 초1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들도 있다”며 “11일부터 모든 학교에 늘봄 기간제교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늘봄학교가 정착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고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09

춘천시 소양강쌀 소비촉진 효과 톡톡

대량 납품계약 시 차액 지원
판매처 확보 농가 소득 증대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춘천시가 소양강쌀 소비 촉진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지역 안팎으로 판매처를 확보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최근 송파구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송파구청에 소양강쌀을 납품하기로 했다. 소양강쌀은 춘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으로 납품되는 소양강쌀은 연간 4.4t 규모다.

앞서 송파공영푸드와도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소양강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매달 3t, 연간 36t이다. 총 40t의 쌀이 송파지역에 납품되는 셈이다.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소양강쌀 소비 촉진에 본격 착수했다. 소양강쌀



춘천시는 최근 송파구청과 협약을 맺고 소양강쌀을 납품하기로 했다.

은 매년 다른 지역의 저가미(米)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대규모 급식업체나 구내식당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소양강쌀을 계약 공급하는 업체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소양강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지역 대학과 병원 등 대량급식처 11곳에 소양강쌀 120t을 납품

했다. 춘천시청은 물론이고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대병원, 강원대학교, 북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에서도 소양강쌀을 사용한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소양강쌀이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농가에서도 반색했다. 그동안 소양강쌀은 늘 재고가 쌓여 9월이 되면 헐값에 팔아야 하는 악순환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이다. 신북읍상가번영회나 지역 외식업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있으며 춘천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 안팎을 대상으로 소양강쌀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청·동대문구청과도 소양강쌀 납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양강쌀의 이 같은 선전은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농가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쌀은 그동안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서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소양강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09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오늘 첫삽 뜬다

봄내체육관 착공식, 2027년 완공
시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 기대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이 11일 개최, 이번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유치도 날개를 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이 11일 오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당초 주최 측은 동면 사업부지 일원을 검토했으나 최종 장소로 봄내체육관이 낙점됐다. 이날 열리는 착공식을

기점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면 지내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면적은 81만㎡로 2027년까지 사업비 3600억원을 들여 소양강댐 심층냉수를 활용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착공식이 11일 열리면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도 본격도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쟁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용지 1필지

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수자원공사 측은 당시 입찰 자격 제한을 높게 설명하면서 입주 가능 기업이 30개 정보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데이터센터 유치의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 규모 있는 기업이 입주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춘천시 판단이다. 춘천시는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도 다시 속도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착공식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착공식 이후에는 관심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찰 계획 역시 착공식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에 입주의향을 접수한 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으며 토지보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춘천 데이터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2

동해 망상1지구 대체사업 유치 안간힘

경자청,사업자선정 실패 제공모
일부 '특정기업 특혜' 의혹 여파
"투자유치 업무방해 강력 대응"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
사업이 대체 시행자 선정에 1차실패
한 후 열흘 만에 제공모를 내는 등 새

사업자찾기에안간힘을 쏟고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망
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공모
(2차)'를 공고,참여희망 업체들에게
50일 동안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을
마련할 기한을 준 뒤,오는 4월 29일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앞서 강원경자청은 대체개발

사업자 공모를 지난 1월 23일 시작해
지난달 29일 접수를 마감했으나 사
업 제안서를 낸 기업이 한 곳도 없어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제안서마감일 직전에 일부단체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 제기' 내용을 담
은 현수막이 강원경자청 인근에 게시
되는 등 잡음이 일자 당초 사업 참여
의지가 있었던 기업체들도 접수를 포

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
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제공모 절차를
통해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을 성공시
킬 수 있는 자금조달능력과 풍부한
개발 경험을 갖춘 건설한 투자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인수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4

평창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시동

2026년까지 예산 6억원 투입
고랭지배추 스마트 연구회 창립
디지털 자동화 등 기술 도입

평창군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
성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고랭지
관리 모델)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통
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6억 원
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는 고랭지배추 노지재
배에 스마트기계화,디지털 자동화,



평창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고랭지배추 스마트 연구회를 창립했다.

수분스트레스관리 등 스마트농업 기
술을 주산 작목 중심의 시범지구
단계적·집약적으로 적용하고 중앙·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중심의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

센터대회의실에서 고랭지배추 재배
농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평창군 고랭지배추 스마트 연구
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고랭지배추 스마트 연구
회 창립을 바탕으로 노지 스마트사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스마트농업 기
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허목성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랭지배추 연작피해 경감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을 확보
해 평창 고랭지배추의 안정생산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6

속초시 '생활인구시대' 중점 조직개편 돌입

조직분석·진단 용역 최종보고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등
개편안 행정절차 후 7월 적용

속초시가 개정 이래 6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돌입한다.

시는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 및 중장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지난해 8월부터 실시했다.

2차 조직개편은 민선 8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관광수요 및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가올 생활인구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특히 행정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국제제 개편, 공공 및 민간 영역 빅데이터 관리기능 통합, 미래 관광과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조직 개설, 도심지 개발 분야와 시민육구 신속대응을 위한 기능 등에 대해 팀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4개 분야에 대한 단·중장기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속초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안을 수정·보완 후 최종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의회 보고 및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7월 적용할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100년의 지속발전 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주석 jooseok@kado.net

江原日報

2024 03 11 ()

10

춘천 기업혁신파크 확정 시 파격 혜택

‘기회발전특구·국제학교’ 시너지 효과 기대
광관리 일대 9,364억원 투입 368만㎡ 규모

【춘천】정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선정 결과를 차례로 발표 중인 가운데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국제학교’를 묶은 파격 패키지 혜택이 뒤따라올 전망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앵커 기업을 맡아 남산면 광관리 일대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 2033년까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

어서 번째 정부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기업 도시를 보완해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1.5배 완화, 입주 기업 법인세 및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이 부여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지자체가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동시에 신청으로 연계 개발 계획 수

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부처 경계를 허물어 줬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기업혁신파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이 늘어나는 등 더욱 강화된 기업 지원으로 투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이에 춘천시도 동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국제 학교 설립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 1월 국회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외국학교법인의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 반영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춘천시로서는 지역 교육 정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시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 확정 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15

“세금은 이렇게 써야” 화천커뮤니티센터 주목

군 교육정책 국내외 언론 보도
온종일 돌봄·대학 무상교육 등
“화끈한 육아지원” SNS서 공감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화천 커뮤니티센터가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달 27일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 주도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개관, 개학일인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지자체 주도 선도 모델로 인정돼 부총리(교육부장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

부 고위관계자까지 현장을 방문하는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화천군의 선진적 교육정책이 소개되면서 국내 언론뿐 아니라 일본 국영방송 NHK의 취재진까지 화천을 방문,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도를 통해 화천의 선진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도 해당 기사마다 수십여 개의 댓글을 달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 화천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대와 화천군민들에 대한 부러움, 자신이 사는 고장에서도 이 같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과 틱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화천의 돌봄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학 무상교육, 유학 지원, 초·중·고교생 무상 해외 배낭여행과 어학연수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날자마자 책임진다는 화천군 화끈한 육아지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 개수가 2만 5000여개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화천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써야지’, ‘화천 사람들이 부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 ‘무상 대학교육에 무상 어학연수라니, 대박’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화제의 대상인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초등 1~2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방

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담임이 각 반에 배치돼 돌봄과 외국어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원어민 교사 108명이 참여하는 화천권역 초·중·고 영어 아카데미 수업도 주 5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센터를 방문, 실내 놀이터, 스터디 카페,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 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향후 사내면에 도사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등 돌봄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익호

2024 03 11 ()

江原日報

12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비 5억 내년 4월 준공

【강릉】강릉시가 지난 8일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김홍규 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원모 부시장과 사업 관련 국·과장, 담당·주무관들이 참석, ㈜유신 컨소시엄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사업대상지 기초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와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했다.

국·도비 3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국내 최초 UAM(도심항공교통), 자

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에 앞서 기존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과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상업, 문화, 주거, 숙박 등 복합 기능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을 수립한다.

KTX 강릉선과 동해북부선, 동해선, 경강선, 강호축 등 국가 철도망 개통에 따른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강릉역 역세권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임신혁 시 ITS추진과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과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2024 03 11 ()

江原日報

13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기업 최대 1억 지원

고성군 환경저감·급수 등 특화시설 설치비 지급
중기 노후 시설 개선은 3천만원 ... 22일까지 신청

【고성】고성군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특화시설 설치와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중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실가동 중인 기업이 대상으로 환경 저감, 해양심층수 급수 및 유통·보관 관련 시설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고성군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이와 함께 군은 26일까지 지역 내 해양심층수 관련 제조 및 관광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개발, 인식 개선,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또 올해 7억원 매출을 목표로 고성군 온라인쇼핑몰(고성몰)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2개 기업 50여개 품목이 입점해 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송용찬 군 투자유치과장은 “제조업체 육성을 위해 시설비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컨설팅 등 추가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2024 03 11 ()

江原日報

16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 온라인서 화제

국내 언론·日 NHK 등 관심
SNS서 누리꾼 칭찬 잇따라

【화천】화천군이 운영하는 전국 첫 지자체 주도 돌봄교실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화천지역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이자 청소년 학습공간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지난달 27일 개관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개관 소식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도입되는 늘봄 학교와 최근 발표된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소식과 맞물려 국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고품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국영방송 NHK 취재진도 화천을 방문해 커뮤니티센터와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각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대와 화

천군민에 대한 부러움, 자신이 사는 고장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화천의 돌봄뿐 아니라 대학 무상교육 등 교육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날자마자 책임진다는 화천군 화끈한 육아지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공감을 뜻하는 ‘좋아

요’ 개수가 2만5,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세금은 이렇게 써야지’, ‘화천 사람들이 부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 등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문순 군수는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 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향후 사내면에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2024 03 11 ()

江原日報

07

사흘간 1만여명 방문.. 업체 판로개척 새 장 열었다

강원건설건축박람회 성과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지난 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20면

올해로 개최 15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민·관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강원 건설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지난 6일 개막해 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에는 도내 우수 건설·건축자재 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60여개 부스를 채우고 발주처와 소비자들을 만났다.

용역 발주 설명회·건설공무원 연찬회 연계 '업체-기관' 소통 강화 담당자 접촉 기회 많아 홍보 효과 탁월... 프로그램 구성도 호평

도내에서 유일한 건설·건축분야 박람회인 만큼 참여업체에게는 절호의 판로개척 기회였다. 행사장에는 사흘간 관람객 1만여명이 방문,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계 개최된 '건설공사·설계 용역 발주 설명회'에 '건설 공무원 연찬회'까지 더해져 참여업체와 발주기관 간 스킨십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개막 첫날인 6일 열린 '건설공사·설

계용역 발주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원주·강릉·삼척시,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도교육청, 강원개발공사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올해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강원자치도 건설 공무원 연찬회'도 7일 박람회장 내에서 진행됐다. 박람회와 공무원 연찬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15년 개최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인 도로·하천 분야 공무원 200여

명은 연찬회 전후 시간을 활용해 기업부스를 살피고 지원책, 올해 추진되는 건설사업 등을 설명했다.

참관 시간 외에도 발주계획 설명회, 공무원 연찬회 등 기관 참여 행사에서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무대에 나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참여업체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백용승 (주)선일씨앤씨 대표는 "박람회를 통해 18개 시·군 발주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실태도 보여드릴 수 있어 의미있었다"며 "발주설명회, 연찬회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담당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도 장점이었다"고 말했다.

박람회 홍보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다. 강국진 선진아이앤디(주) 이사는 "몇몇 지자체로부터 박람회 이후 미팅을 잡아 샘플을 받아볼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제품 홍보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상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특정 산업 관계자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모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2024 03 11 ()

江原日報

05

의대 증원해도 의사 수도권 쏠림 못 막아

전공의가 보름째 병원을 비우면서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내 의과대학 정원이 최대 46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인원이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만들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사 증원 정책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본다.

■'공공의료' 빠진 증원, 위기 때만 찾는 의료원=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들의 병원이 이탈이 시작되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공의료기관 중심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고 강원자치도내 4개 대학병원이 외래진료를 중지하는 경우 도내 5개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공의 파업 악화로 ... 강대강 대치 속 길 잃은 '지역의료'

도내 5개 의료원 병상가동률 4년 만에 최대 65%까지 떨어져 공공의료 인력난 악화 불구 지역 의사 양성 시스템 논의 없어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육성과 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장기 대책은 없어 경영난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개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4년 만에 적게는 26%부터 65%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강릉·원주·속초·삼척·영월의료원 중 3곳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목을 일시 휴진하거나 폐과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서의 인력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 없는 지역대의대, 면허 취득 뒤 '수도권행'=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지지만 정작 의사인력 양성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강원자치도 내에는 4개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강원대와 연세대원주 의과대 2곳만 실습과 수련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도 지역 의사 양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의과대학은 부속병원 실습과 면허 취득이

후 전공의 수련을 수도권에서 진행해 '의료진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지역 의사 양성과 동시에 이들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욱 강릉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해 교육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는 기본적인 인성과 지식을 갖추고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을 돕는 사람"이라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13

인제 공동체 활성화 '지역혁신리더' 양성

군, 지역거주자 대상 전문교육
강의·견학·토론 등 11회 운영
18일까지 방문·이메일 접수

인제지역혁신성장 동력강화와 함께
지역미래를 이끌어갈 지역혁신리더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인제군은 지역주민 주도형 문제해
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동력 강화는 물론 지

역발전 도모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부터 지역혁신리더양성교육을 실시
해 오고 있다.

군은 11일부터 농촌인구 감소·고
령화 등 지역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5기 교육생
을 모집한다. 지역혁신리더 양성교
육은 25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환의 시대 지역리더의 과제 △농
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접경지역에

서 평화지역으로 △자치와 협력, 지
역 공동체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
이다. 지역혁신리더 신청대상은 지
역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만 20~60
세 이하 주민으로 교육 참가비는 20
만원이며, 교육과정은 오는 4월 1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29
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론 강의와
우수선진지 견학, 분과토론, 공공정
책 제안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참
가신청은 오는 18일까지 UN지속가
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로 직접 방

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rceinje@
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1~4기 지역
혁신리더 양성교육 기본과정을 통해
지역리더 80명을 배출했으며, 이 중
56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장웅 기
획담당은 "시대 변화에 맞서 지역발
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지원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
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江原日報

2024 03 11 ()

16

“청정 철원에 소각재 매립지 반대”

갈말읍 일대에 조성 알려지자 주민·사회단체 반발
현수막 내걸고 서명부 제출... 군 “인허가 문의 없어”

【철원】“청정 철원에 소각재 매
립지 조성을 반대합니다.”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일대
에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잔
재물인 소각재의 매립지 조성
을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업체가 강포리에 소각

재 매립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
역 내 20여개 사회단체가 곳곳
에 현수막을 내걸고 소각재 매립
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강포
리 주민 170여명도 최근 반대서
명부를 작성, 철원군에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찬성 목
소리를 내고 있어 마을과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도 나온다.

이관선 갈말읍이장협의회장은
“축산 악취가 바람을 타고
갈말읍 도심지까지 영향을 미
치는 일이 잦은데 소각재 매립
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의 철원에 대한 이미지
와 지역상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군은 주민과 사회단체
의 소각재 매립지 조성 반대 목
소리와 관련, 업체에게서 인허
가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이 없
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가 크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
다”며 “인허가와 관련된 문의
는 아직 받은 것이 없다”고 말
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 19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필요

-부족한 농촌 인력 안정적 제공대안 될 수도

강원도내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영농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배가하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농촌 인력 부족 우려는 필리핀 정부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을 결정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연초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로 인해 한국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파견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일손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러다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스템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선 여량농협·임계농협이 라오스에서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투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평창 진부농협·대화농협, 횡성 둔내농협, 정선 여량농협·정선농협·임계농협·예미농협, 화천농협, 철원 김화농협이 각각 24~50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합니다. 농가 입장에서 일반 계절근로자와 달리 상시 고용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공공형 계절 근로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군농협과 군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내 타 지역 농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제도화해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위기에 놓인 영농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농업 관계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과 연대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1 ()

/ 19

민심 듣고 헌신하는 자세로

-D-30총선 정책으로 승부해 삶의 질 개선해야

4·10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강원지역은 여야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1곳을 제외하고는 공천을 마쳤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 군소정당, 무소속을 포함해 도내에서 2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선준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주로 현역의원이 공천돼 최대 5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처음 지역구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 남녀 얼굴이 보입니다. 여야 맞대결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 구도에 이르기까지 지역특성을 드러냅니다.

정당 공천이 확정되기 전의 경선이 주로 정당당원과 시민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였다면 공천확정 이후는 유권자 전체를 향한 행보이므로 선출직과 위공직자로서의 헌신적인 태도를 재차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3월 21,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앞두고 당선을 향한 여러 선거 전략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조직을 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잘 들어 정책화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권력 분립, 법치주의, 의회법률주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습

니다.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중대한 기능을 합니다. 국민대표로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민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심의의결하는 견제기능을 담당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제도화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 첫 단추부터 유권자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공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후보를 선호할 리 없습니다. 학연 등 각종 인맥에 기댄 선거 역시 후진적입니다. 22대 국회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유권자는 그 중요성을 알기에 정당 및 후보가 내놓는 비전과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권 비대화 및 지역 쇠퇴 현안을 해결하고, 물가고에 실질 임금이 낮아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청됩니다. 청년취업과 저출생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에 철저하게 헌신적인 자세로 야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3 11 ()

/ 19

가파른 물가에 서민 고통, 안정시키는 게 민생정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지난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신선식품 가운데 신선채소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7% 급등했다. 지난해 3월 14.4% 상승한 뒤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파(76.1%)의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과 주요 산지인 전남 신안 등지의 겨울철 폭설 영향으로 대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토마토(43.0%), 시금치(40.0%), 오이(23.1%), 부추(20.8%) 등도 20% 이상 치솟았다.

물가는 한번 상승세를 타면 잡기가 쉽지 않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간 우리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해 곤경을 겪은 사례를 수없이 봐 왔다. 물가 안정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앙정부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정책 수단이 더 제한적인 자치단체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마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물가를 잡는 것이 곧 민생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우선 물가 상승 요인을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로, 지역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 요인이 시급하지 않은 품목, 인상 압박이 강한 품

목 등 사안별로 구분하고, 인상 시에도 시기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다. 즉, 가격을 한번에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비중치가 높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가 상승에 영향이 큰 품목 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가격 인상 압박이 큰 서비스 부문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 특히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 요금은 1,000원 단위로 가격 인상이 이뤄져 상승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 지자체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물가가 서민 고통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3 11 ()

/ 19

환경부 산하 기관 오·폐수,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 방류로 오염되고 있다. 더욱이 오염원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의 생활하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제군 환경보호과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실시한 인제군 한계천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생태탐방원의 방류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항목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탐방원의 방류수 BOD는 26 ppm으로 기준치(10 ppm)의 2.6배를 넘었다. 탐방원은 2023년 11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인제군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

료 부과를 통보받았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인제군에 적발돼 지난 6일 과태료 200만원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다.

탐방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는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탐방원은 지난해 개선명령을 받고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 업체까지 변경했다. 방류수가 또다시 기준치를 넘자 이번에는 5,000만원을 투입해 처리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처리 과정을 이중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탐방원 측은 숙박 인원수의 문제라기보다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용역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숙박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

은 맞지만 한계천이 검게 변하고 이끼가 낀 것이 직접적으로 방류수에 의한 것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 산하 기관이 오폐수를 내보내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배짱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두 차례씩이나 탐방원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오염된 생활하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

히 있기 때문이다. 즉각 생태탐방원 운영을 중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미 탐방원에서 유출된 생활하수로 인해 한계천에 이끼와 악취가 발생하

국립공원공단 운영 생태탐방원 방류수

4개월 새 법정 기준치 초과 두 차례 적발돼

한계천 오염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

고 하천이 검게 변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로 한계천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업을 잠시 멈추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정한 설악산 국립공원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보고다. 이대로 오폐수가 계속 배출된다면 한계천 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후속 조치 요구를 외면하고 아직까지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환경 당국은 지역 의견을 더는 묵살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